

# “더 빠르고 안전하게” 나주시, 치매환자 실종사고 안전망 구축

###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경찰서·소방서와 ‘치매 더+ 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치매 고위험군 배회·실종 문제 근본 개선책 마련... 매월 1회 간담회, 핫라인 구축

나주시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증가하는 치매환자 실종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모은다.

나주시는 지난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경찰서, 소방서와 치매환자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매 더+ 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와 3곳 기관은 최근 실종 치매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된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치매 고위험군 체계적 관리, 실종 시 초동 대응, 신속·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한 수색·수사 등에 초점을 둔 협업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나주시치매안심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치매환자 실종 건수는 2019년 25건, 2020년 25건, 2021년 17건, 2022년 17건으로 길을 잃고 배회하며 실종까지 이르는 사례가 반복해

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치매 고위험군 환자 배회·실종 시 기술적, 제도적 차원의 뚜렷한 해결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4곳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매월 1회 간담회를 열고 기관별 현황 공유 및 핫라인 구축, 배회·실종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한 솔루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고위험군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통해 실종자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다.

또 자율방범대(765명), 의용소방대(660명), 생활지원사(143명) 등 각 읍·면·동 안전 분야 사회단체 민간 인력과 24시간 CCTV관제센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경찰·소방의 신속한 대응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

매환자 증가, 가정 돌봄의 한계로 인해 길을 잃고 배회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경찰·소방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번 협약 체결, 협업을 통해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협약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기술을 활용한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이번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돼 기쁘다”라며 “기관 전문성을 살려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소방서는 정보 공유에 따른 수색·수사,



치매가구 사고 예방을 위한 방문 협업, 응급 치매환자 보호 업무 등을 수행한다.

박상훈 경찰서장은 “이번 협약 명칭처럼 더 안전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실종 노인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용주 소방서장은 “치매 실종 문제는 개인 대응이 어려워 사회적 문제로 공동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이번 협약이 치매환자 실종 문제에 대해 개인 대응 중심에서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 구축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 담양군, 2023년 중간관리자 청렴교육 실시 계묘년 새해 부패척결·청렴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 보여

담양군은 지난 10일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중간관리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한 중간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당부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과 금품·향응 수수 근절을 위한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행사 말미에는 참석 한 직원이 청렴피켓을 손에 들고 청렴 가치를 몸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청렴문화 확산

산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담양군은 최근 사무실에서 진행된 청렴 실천 결의대회에 이어 이번 교육을 진행하며 계묘년 새해 부패 척결과 청렴 실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 스스로 체질화해야 하는 기본 신념이자 책무다”라며 “이번 중간관리자 청렴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앞으로도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구례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호응’

### 2021년 3월부터 업무 시작... 현재 768명 등록

구례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2021년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해 현재 768명이 등록하였고, 군민들로부터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의료원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효력을 갖고 의료기관을 리우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이행을 할 수 있으며 변경할 때는 등록기관을 통해 철회도 가능하다.

이에, 구례군은 안정적인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입구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 061-780-2052로 연락하면 된다.

구례=박진호기자

## 곡성군, 전남형 청년마을 ‘두꺼비마을’ 첫 뽀박질 약자지절 곡성 두꺼비마을 한달 살기 2기 모집 중

곡성군의 ‘두꺼비마을’이 뽀박질을 시작한 다.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창작소 동행(대표 전민수)의 ‘두꺼비마을’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 한달살이에 들어갔다.

“전남형 청년 마을 만들기”는 청년들이 직접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사업비 3억원이 지원되며 전남에 5개소가 선정됐다.

곡성군의 ‘두꺼비마을’은 “두껍아, 두껍아. 한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전래 동요를 모티브로 삼았다. 유입 청년들이 노후된 농촌마을의 빈집을 직접 디자인하고 시공해 새로운 공간

으로 탈바꿈해나갈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현재 두꺼비마을 1기 참여자들은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곡성에 거주하며 한달살이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디자이너, 미디어 제작, 청년센터 매니저 등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한 청년들로 구성돼 있다.

두꺼비마을 1기는 청년들에게 곡성의 매력을 알아가는 ‘농촌 이해 프로그램’과 셀프 인테리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두꺼비유치원’을 진행 중이다.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본격적으로 건축 기술 관련 자격증 취득과정까지 지원하는 ‘두꺼비실현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곡성=양혜영기자

## 화순군,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 프로그램 운영

화순군은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에서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수영장에서는 우수한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춘 수영강습 프로그램과 어린이 수영강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기초반부터 상급반까지 자신의 실력에 적합한 반을 선택해 강습을 진행할 수 있다.

수영강습반 수강신청은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도 수영장 안내데스크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문화시설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